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민수기 14:4-10

4_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_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엮드린지라 6_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_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_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_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_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 14:4-10)

1. 지난주 우리는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다. 그 약속은 명확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애굽 땅에서 400년간의 노예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앞서 가며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다.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

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조금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환경의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불만을 내뿜기 시작한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더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건만, 이제 형편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다. 살 만 하니까 불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3.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으며 정탐하러 갔음에도, 눈에 보이는 거인들을 보며 두려워 떨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겨우 자신보다 조금 더 큰 똑같은 사람을 보며 '나는 메뚜기이다'라고 하고 있다. 14장 3절에서는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며 원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곤경에 빠질 때마다 믿음이 모자라서 불만과 반항의 행동을 취하였다. 목적지를 눈 앞에 두고 있음에도. 그 믿음이 없어서!

4. 그러나 두 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된다고 하였다.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 힘, 능력을 의지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계산 두드려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5.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들으며 그것에 편승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은 아랑곳 않고 주위의 시선만을 신경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다. 함께 외치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아! 걱정들아! 시험들아! 다 내 밥이다!